

## Contents

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두바이 공항, 지난해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 1위



### 해외 현지 리포트

- 중국 전국 통관 일체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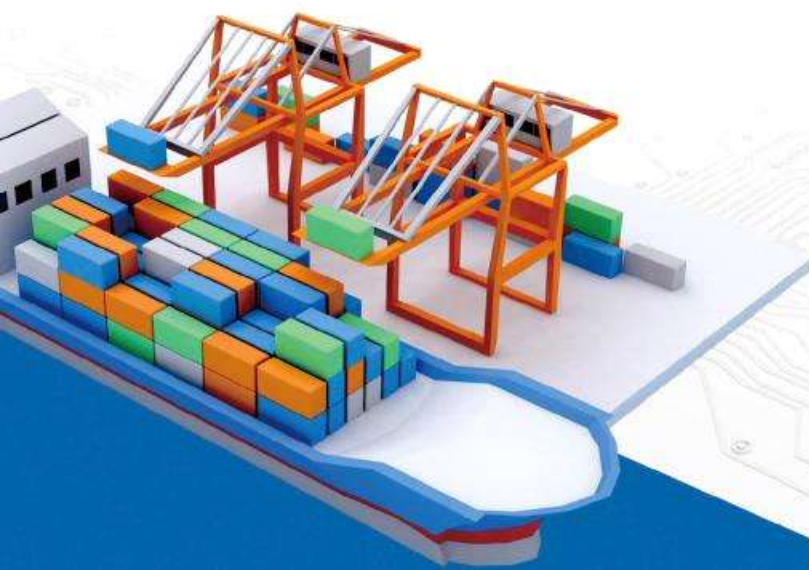
#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Halifax항, 컨테이너물류 경쟁력 강화 위해 항만개발 박차
2. 리니지 로지스틱스, 이머전트 콜드 인수 발표
3. ECU 월드와이드, 홍콩·싱가포르 물류기업 인수
4. NYK, Dualog와 디지털 플랫폼 R&D 계약 체결

### 명사 스피치

“물류산업의 각 주체가 단기적인 이해득실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여 변화를 수용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활성화 되고 우리 물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.”

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
(2019. 11. 13. / 물류신문 인터뷰기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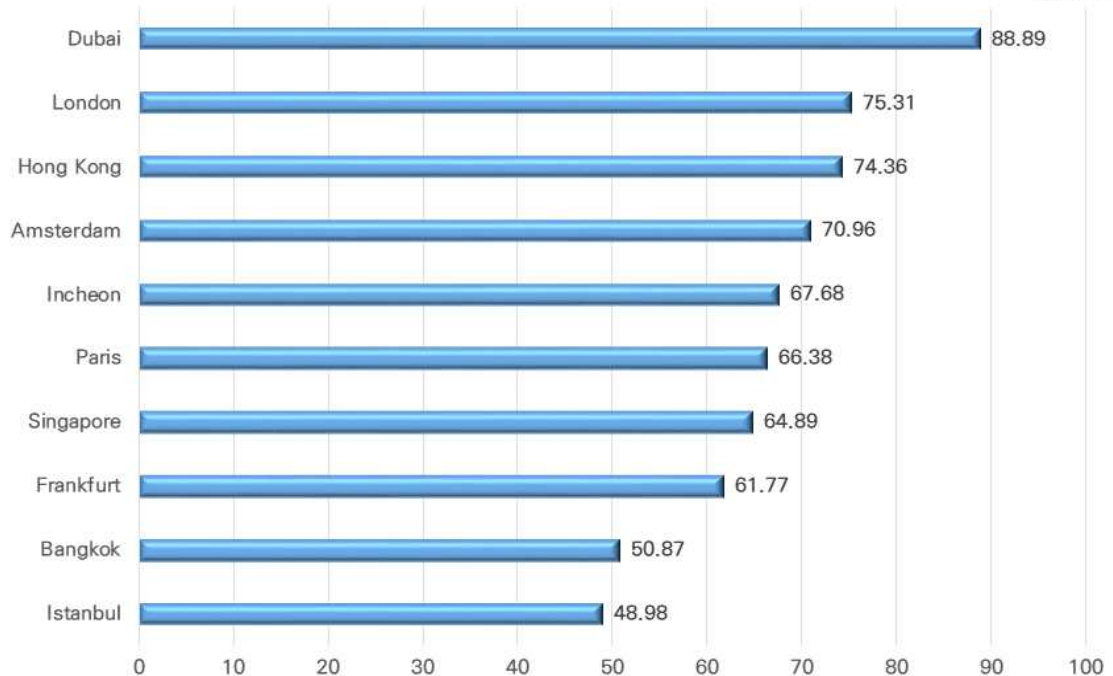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 두바이 공항, 지난해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 1위

2018년 공항별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

단위: 백만 명



자료 : www.statista.com

- 작년 기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국제공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8,889만 명의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을 기록함
- 이어서 런던 공항, 홍콩 공항, 암스테르담 공항 순으로 많은 운송량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은 약 6,788만 명으로 5위를 기록함

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bjkim17@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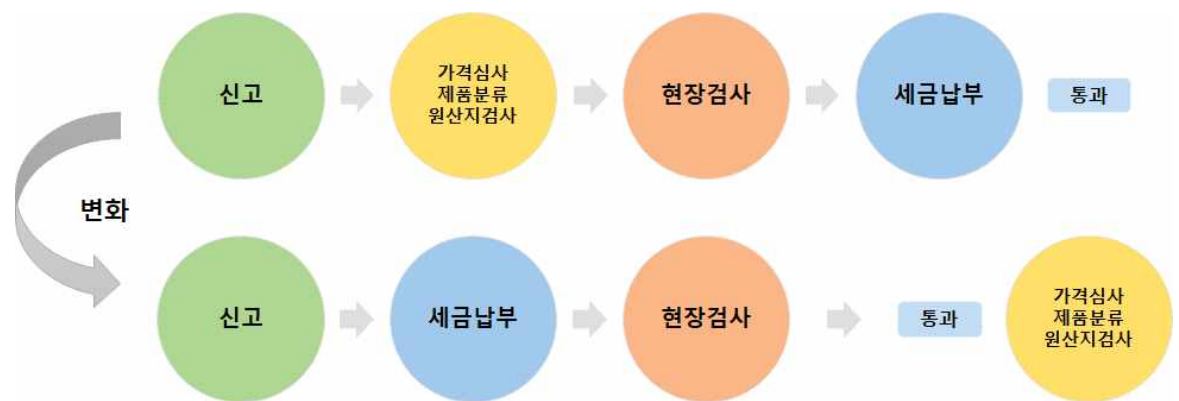


## 해외 현지 리포트

## 중국 전국 통관 일체화

- 수출입 기업, 회사가 스스로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...
  - “진심으로 법률을 수호하면 편리를 제공하고, 신용을 버리고 불법행위를 감행하면 징벌” 하는 정책을 구체화해 세관의 일괄적 법률 집행을 보장하고 절차 간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...
    - 海关总署 公告 第62号 발체
- 중국의 통관 일체화는 <해관본부 공고 2017년 제 25호 - 전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추진 공고 (关于推进全国海关通关一体化改革的公告, 2017,7,1 시행)>를 통해 공표, 시행됨
  - 기존 중국의 통관은 지역별로 집행기준이 상이해 유통 거점 지역과 상관없이 일부 지역에 통관이 집중 되어 기업의 통관 및 운송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기업의 수출입 비용/시간 경감 및 이로 인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각 항구의 통관 수속을 통합 전산화시키는 “전국 통관 일체화” 제도를 시행함
  - 전국 통관 일체화의 핵심적인 변화는 수출입 항구의 지역별 제한이 사라진 것 외에 세관 주요 업무인 품목 분류와 과세 가격 심사를 사전 심사에서 사후 관리로 변경한 것임

## 전국 세관 통관 일체화



- 새로운 방식의 ‘선 통관 후 심사’ 제도
  - 새로운 방식의 ‘선 통관 후 심사’ 제도는 화물의 수출입 통관 시 세관이 화물의 안전 여부, 합법적 수출입 여부 등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하도록 진행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함
  - 그러나 동시에 통관 후 사후 감사를 강화해 사후 조치에 적발된 경우 고객의 벌금 외에 향후 수입 통관의 검사 비중을 늘려 기업에게 장기적인 어려움을 주는 방안, 은행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징벌 방안도 함께 준비함
  - 기업의 편리와 함께 전문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당국은 통관 전/후를 관리하는 두개의 기관을 설립 하고 하나의 통관에 대해 분산 처리하는 방식을 확립함

- 리스크 통제 센터(风险防控中心)는 통관 전 수입물품의 금지규정 위반, 저작권 침해, 규격·수량 허위 신고 여부 등 수입 리스크 파악 및 조사를 담당하며, 세수 센터(税收征管中心)는 각 센터별 전문 품목을 분담하며, 관련 품목 전문가가 통관 후 선별된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서류심사, 관세 평가를 수행함

### 전국통합관리



지역	관할 업무	지역	품목	HS CODE
칭다오	해상운송	광저우	화학공업류	25~29, 31~40, 68~83 (총 30장, 2800개 세율번호)
상하이	항공운송	상하이	전기, 기계, 설비류	84~87, 89~92 (총 8장, 2286개 세율번호)
항푸(광둥)	육로운송	베이징·톈진	식품, 약품, 방직류, 경공업 등	1~24, 30, 41~67, 88, 93~97 (총 58장, 3461개 세율번호)

- 중국 통관 일체화로 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함
  - 중국 통관 일체화는 현재 시행 중이며 중국 당국은 각 기관의 정보 통합 등을 통해 확보된 Big data로 “자진신고, 자진납세”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입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향상을 진행하고 있음
  - 중국 세관의 경우 수차례 개혁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국통관 일체화까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왔음
  - 기존 수동적인 방식에서 주동적인 방식으로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게 비용/시간의 절감 기회를 줄 수 있으나 빠른 변화로 인한 우리 기업과 담당자의 불완전한 정책의 이해는 품목 코드 오류, 세금 신고 오류 등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, 통관 후 사후 감사 대비 자료의 준비와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함

참고자료 : www.lofam.co.kr 로팜 홈페이지, [http://blog.sina.com.cn/s/blog\\_e26884910102x4s2.html](http://blog.sina.com.cn/s/blog_e26884910102x4s2.html), 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8/globalBbsDataView.do?setIdx=246&dataldx=168856>, 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5/globalBbsDataView.do?setIdx=244&dataldx=162866>

(주)로지스틱 패밀리 김민성 이사  
010-2316-2304, mskim@lofam.co.kr



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## Halifax항, 컨테이너물류 경쟁력 강화 위해 항만개발 박차

- 캐나다 동부지역 주요 항만인 Halifax항이 향후 컨테이너화물 처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 - Halifax항은 약 3억3천만 달러의 항만개발 사업비가 투입된 'South-End-ContainerTerminal'의 선석 연장 개발 및 하역장비 추가 투입 프로젝트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임
  - Halifax항 개발주체인 Halifax 항만청(Halifax Port Authority)은 'South-End-ContainerTerminal'을 캐나다 동부지역 컨테이너화물 처리 거점 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근 선석길이를 기존 2,165m에서 2,890m로 확장 개발했으며, 15,000TEU급 메가쉽 2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16m로 증심했음
  - 'South-End-Container-Terminal' 운영사인 PSA는 선석연장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슈퍼 포스트-파나막스급 크레인 1기와 야드크레인(RTG) 4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임
  - HPA(Halifax Port Authority) 대변인 퍼거슨 씨는 향후 Halifax항을 캐나다 동부권역 최고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, 화주, 터미널 운영사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음
  - 한편, halifax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지난 5년(2013~2018년)간 약 48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, 금년 1~9월에는 약 42만TEU를 처리했음

Halifax 항만의 전경



출처: <https://www.joc.com/port-news/>

■ 참고자료 : [www.joc.com](http://www.joc.com), 2019.11.25.

이주원 연구원

051-797-4667, peterlee@kmi.re.kr



## 리니지 로지스틱스, 이머전트 콜드 인수 발표

- 세계 최대 온도조절 물류 솔루션 제공업체인 리니지 로지스틱스(Lineage Logistics)가 최근 이머전트 콜드(Emergent Cold)를 인수하기 위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
  - 두 회사가 거래조항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리니지 로지스틱스가 이머전트 콜드를 9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함
  - 이번 인수는 관례적인 폐업 조건과 규제 승인을 조건으로 2020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
- 미국 미시간주 노비에 본사를 둔 리니지 로지스틱스는 2008년 창사 이래 동급 최강의 콜드 스토리지 기업을 인수해 신규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입하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등 빠르게 성장해 옴
  -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베이 그루브(Bay Grove LLC)는 리니지 로지스틱스의 주요 투자 회사임
- 2017년 설립된 이머전트 콜드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미국 New Orleans Cold Storage를 포함해 6개 국가에서 7개 기업을 인수함
  - 올해 초에는 또 호주의 Oxford Refrigerator와 스리랑카의 Finlays Colombo를 인수함
- 이번 인수를 통해 리니지 로지스틱스는 자사의 전략적 입지를 아태지역 내 주요 신규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항만 네트워크도 강화하게 됨
  - 인수가 완료되면 리니지 로지스틱스는 미국, 호주, 뉴질랜드, 베트남 및 스리랑카에 46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, 10개국 260개 시설에 17억 입방피트가 넘는 냉장 공간을 확보하게 됨
  - 또한 댈러스-포트워스 시장에 새로 건설된 물류센터와 뉴올리언스, 휴스턴, 찰스턴 등 항만의 4개 시설을 추가 확보해 자사 고객들을 위한 수출입, 통관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게 됨
- 리니지 로지스틱스의 CEO Greg Lehmkuhl씨에 따르면 현재 식품 생산업체,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들은 역동적이고 진정한 엔드 투 엔드(End-to-End) 온도 조절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한 콜드체인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음
  - 그는 자사 고객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최적화, 관세 영향,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그들이 새로운 잠재적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힘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lineagelogistics.com/> 2019.11.18.

김은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## ECU 월드와이드, 홍콩·싱가포르 물류기업 인수

- 벨기에 앤트워프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콘솔(LCL·화물혼재) 기업인 ECU 월드와이드가 11월 20일 홍콩과 싱가포르의 물류기업에 과반수 출자하며 인수했다고 발표했다
- ECU 월드와이드는 인수한 회사명과 출자 금액 등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, 현지 언론에 의하면 홍콩 기업은 파쿠다 물류, 싱가포르 기업은 스페캠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설이 유력
- Shashi Kiran Shetty씨(ECU 월드와이드 CEO)는 이번 인수에 대해 LCL 사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로지스틱스 분야에 선진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자사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
- ECU 월드와이드는 세계 굴지의 글로벌 콘솔 기업으로서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지역에 30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며 2,400루트 이상의 다이렉트 물류 라인을 갖추고 있음
- 홍콩 기업 인수를 통해 ECU 월드와이드의 네트워크는 수출 50루트, 수입 20루트 증가하게 되며, 특히 아시아·태평양-유럽 물류 라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
- 싱가포르 기업 인수를 통해서도 위험물 취급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음
- 또한 이번에 인수한 기업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거점을 활용함으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사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[secure.marinavi.com](http://secure.marinavi.com), [ecuworldwide.com](http://ecuworldwide.com) 2019.11.27.

한성일 부연구위원

051-797-4781, [han@kmi.re.kr](mailto:han@kmi.re.kr)



## NYK, Dualog와 디지털 플랫폼 R&D 계약 체결

- 일본 해운회사 NYK와 노르웨이 해양기술 회사인 Dualog가 선박관리 개선을 위한 장기 산업 연구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
  - Innovation Norway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'Cepa Shield' 프로젝트는 50척의 선박을 시험대로 사용해 디지털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임
  - 이 프로젝트는 자동화, 사물 인터넷(IoT)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으로 NYK와 Dualog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임
- 프로젝트는 2021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프로젝트의 개발 작업은 NYK 선박의 디지털 기능 개선 외 Dualog에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  -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과 함께 온보드 IoT 플랫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
- 프로젝트는 해양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 기술에 중점을 둘 계획임
  - 중점을 두고 연구할 기술은 확장된 온 보드 센서 및 모니터링 장비에서의 데이터 수집, 안정적인 선박 간 통신, 비즈니스 개발, 수익 및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과학 및 데이터 분석, 선박 장비 모니터링, 이벤트 분석 및 지능형 경보, 예방 장비 유지 보수, 자동화 및 기계 학습임
- Dualog의 CEO인 Morten Lind-Olsen씨는 프로토콜 및 보안에 대한 통신 제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뿐 아니라 선상에서 다른 통신장비들을 통합하는 방법도 포함되며, 다른 서비스와도 트래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대역폭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

■ 참고자료: <https://smartmaritimenetwork.com/>, "NYK to operate 50-vessel tech R&D testbed in partnership with Dualog", 2019.11.21. / <https://worldmaritimenews.com/>, "NYK, Dualog to Develop Cyber Risk Management System for Ships", 2019.11.22. / <https://www.ship-technology.com/>, "NYK forges new R&D deal with maritime technology firm Dualog", 2019.11.22./ <http://www.nykeurope.com/>

권보배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

